데이비슨 헵번 유네스코총회 의장과 강운태 광주시장 등이 5일 오전 금남로 1가에서 유네스코 민주인권로를 알리는 표지판을 어루만지고 있다.

5일 오전 광주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헵번 의장이 5·18 민주영령에게 헌화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21세기 지구촌 민주화 광주가 모범 답안"

광주시 유네스코와 함께 인권지표개발·인권 헌장 제정 추진

민주화 역사 국·내외 사례 담아 가톨릭센터 아카이브 구축

광주시는 5일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선포를 계기로 본격적인 UN 인권도시 지정 절차에 착수한다.

UN이 지정한 인권도시의 선례가 없지만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등재를 계기로 인권지수 개발, 인권헌장 제정 등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5·18은 물론 4·19 혁명 등 국내 민주화운동 및 국외 민주화운동의 역사까지 담은 아카이브 구축 등에도 나서는 등 그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5일 인증서 전달식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시민의 삶 속에서, 공동체에서 인권이 꽃이 피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와 생명을 보듬고 존중하고 자신의 창조적 역량 펼칠 수 있도록 인권의 가치 더 중시해야한다"며 "광주가톨릭센터에 들어설 5·18 아카이브에는 국내 다른 사례, 외국 도시 사례까지 다 포함시켜 인권의 메카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민주주의와 정의를 부르짖으니 잘 산다는 인식을 주어야 하며, 그래야만 다른 도시도 민주주의를 본받고 정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공동체'를 강조하며 인권지표 개발에서 인권헌장 공포, 세계인권포럼 개최 등 잇따라 인권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는 이번 세계기록유산 선포에 이어 '세계 최초 UN 인권도시'의 밑그림을 그릴 방침이다.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표현되고 실증될 수 있는 '구체화된 인권'을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유네스코와 광주시가 '파트너십'을 구성한 이상 인권지표 개발, 인권헌장 제정 등을 공동으로 진행할 경우 결과물의 가치가 세계 속에 인정될 것이라는 것이 광주시의 분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 정신의 헌법전문 명시, 기록물의 국내 문화재 지정 등과는 별도로 인권도시 지정을 위해 유네스코 측과 어떻게 연계해 나갈 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빛나만평

- 김종두

진짜 소는 누가 키울지 걱정스럽다

■ 인증서 전달 이모저모

김총리 "고향 광주의 경사"

○…5일 5·18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식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고향 광주의 '경사'에 밝은 얼굴로 축사에 나서 5 · 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의미를 설명.

김 총리는 "직지, 훈민정음 등 9개의 기록유산 중 5 · 18 기록물이 우리나라 현대사 자료로는 최초로 등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무척 크다"며 "광주정신은 우리 국민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를 믿는 전 세계인의 자랑이며 5 · 18 민주화운동은 한국은 물론 세계 민주주의 꽃을 피우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

그는 아울러 "정부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기록물을 포함해 5 · 18과 관련된 모든 기록이 잘 보존되고 후세에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

"금남로 물길 지원해달라"

○…이날 전달식에 한나라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광주의 현안인 광주가톨릭센터 5·18 아카이브 설치, 금남로 물길 조성 등을 위한 국비 지원을 재치있는 입담으로 유도해 눈길.

정 부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실속 있는 말을 하겠다"고 운을 뗀 뒤 김 총리에게 "광주시가 5·18 아카이브 설치에 필요한 50억원을 신청했는데 기획재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됐으니 김 총리께서 확보해 달라"며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

이어 정 부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광식 문화재청장에게 "장관의 첫 사업은 금남로에 물길을 조성해 문화중심거점도로로 만드는 것이어야 하며 여기에 50억원 정도만 지원해달라"고 강조.

"문광부장관 청문회 통과 부탁"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 통과를 지역 민주당 의원과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부탁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표.

강 시장은 "우리 지역과 가장 밀접한 장관이 되실 최광식 문화재청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등재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최 내정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무조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김진표 원내대표 등에게 건의했다"고 언급하는 등 행사 분위기를 주도.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헵번 유네스코총회 의장 일문일답

5·18 무고한 희생 있어서 세계 평화·인권 희망있다

5·18 기록물의 세계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인증서를 전달하기 위해 4일 광주를 방문,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와 유네스코 민주인권로 명명식 참석 등 '강행군'을 한 유네스코총회 데이비슨 헵번(80) 의장을 만났다. 그는 "광주시민들의 민주화를 향한 열정이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첫 방문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헵번 의장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정해진 인터뷰 시간을 넘겨가며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답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5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소감은.

▲경건한 마음으로 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강한 인상을 받았으며 정의와 평화를 위한 그들의 희생이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뻤다. 그분들은 국가에 대한 사랑,국민에 대한 사랑을 갖고 목숨을 걸고 불의에 맞선 살아 있는 역사라는 생각이다. 사랑과 존경을 느꼈다. 또 많은 국가에서 민주화운동이 있었고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으며, 민주화를 위한 광주의 열정은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미칠 것으로 본다. 평화·인권·정의에 희망이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5·18 기록물 등재과정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어렵고 민감한 부분인데, 다른 국가나 도시에서도 지원 등재 요청 신청서 쇄도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전문위원회가 이를 검토하는데 고통이나 슬픔 등 감정적인 부분이나 인식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등재 전에 관련 자료 읽었는데 진상 규명이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는 사실도 알았지만 그것과는 관계없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광주시민들의 열정 등이 등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진상규명은 국제기구가 나설 수 없으며, 앞으로 기자들이 이 부분에 노력해주길 바란다. 등재에 반대한 사람들이 일부 있었으나 이제 등재가 된 이상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앞으로 해야할 일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비교적 현대기록물인데도 지정된 배경은.

▲저도 신청서에서 관련 정보를 읽었던 사람이다. 직접 경험하지는 못한 일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비정부기관이 신청한 것이 독특했으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공동체로서 자율성을 갖춘 시민의식 보여주었다는 점은 다른 국가의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볼 수 없었던 경이로운 현상이다.

-앞으로 광주시와의 연계사업은 어떻게

▲파트너십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권 관련 업무를 당연히 같이 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인권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에 대한 국가간, 민족 간, 계층 간, 연령층 간 등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명백하고 진실한 인권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광주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혼자가 아니라 다 함께 불의에 맞서야한다. 인권은 누구나 말은 쉽게 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계속 진전시켜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문제를 제기해주길 바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일시 : 2011년 9월 20일(화)~
※매주 화, 목 18:00 ~ (총100시간)
☎062)605-1112, 1063
■접수기간 : 9월 9일(금) 까지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홍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쇼핑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타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청 옆):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국제품질 ISO 9001인증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 구)도청옆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